

엘친 前 러시아 대통령 타계

옛 소련의 몰락을 촉진하고 민주 러시아를 출범시킨 보리스 엘친 러시아 초대 대통령이 23일 76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오랫동안 심장질환을 앓아온 엘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45분(현지 시각) 관상혈관계 이상으로 사망했다고 러시아 대통령 주치의가 인터넷 팩스 통신에 밝혔다.

엘친 전 대통령은 1991년 러시아 초대 대통령 당선직후 발생한 강경 보수 군부·공산주의자 세력의 쿠데타에 맞서 쿠데타군의 탱크위에 직접 뛰어올라가 온몸으로 이들의 체제 전복시도를 저지함으로써 러시아 민주주의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1931년 우랄산맥 근처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출생한 엘친 전 대통령은 1989년3월 모스크바에서 90% 가까운 압도적 지지로 소련인민대회원에 당선, 정계에 화려하게 복귀한 후 1991년 6월 러시아 공화국 최초의 직선 대통령이 됐다.

그는 역사적 격변기에 소련의 주축인 러시아 대통령에 선출된 후 공산당 보수파의 쿠데타를 무산시키면서 결국 소련을 붕괴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러시아에 시장경제와 복수정당제, 언론자유, 사유재산, 여행자유화 등 민주제도를 도입하고 외국투자 자유화 등 시장경제를 지향했다.

엘친 전 대통령은 그러나 소련 붕괴와 민주 러시아 출범의 공로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엘친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91년 8월 모스크바에서 탱크 위에 올라가 성명을 읽고 있는 모습. 그는 러시아 국민에게 강경파의 중앙정부 장악에 저항하라고 촉구했다. /AP=연합뉴스

91년 쿠데타 저지...민주 러시아 이끈 풍운아 무능·失政·경제 추락 “실패한 대통령” 지적도

서 국유산업을 헐값에 민영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대외적으로도 체첸 전쟁의 실패 등으로 러시아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러시아는 그의 재임시절 시장경제로의 체제변화에 불구하고 국민소득이 75%나 하락하고 영양상태 부족

으로 인구가 200만이나 줄어드는 등 무능과 실정을 지적받아왔다. 국유 자산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소수 기업인들만이 특혜를 누렸고, 이를 불하받은 재벌들은 ‘올리가르흐’로 불리면서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정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러시아는

심각한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패국가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엘친의 가족과 최측근 인사들을 포함하는 범위의 ‘엘친 패밀리’는 부패의 상징이기도 했다. 1996년 대선에서 엘친을 당선시킨 것도 올리가르흐들이 살포한 막대한 자금과 그들이 보유한 매스컴을 통해 이뤄진 것이었다.

엘친 전 대통령은 퇴임후 모스크바 근교 바르비하 별장에서 사냥과 운동, 독서 등으로 소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나이나 여사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엘친은 동서 냉전 치유자” 세계 지도자 애도

오늘 장례식...정부 한명숙 前 총리 조문사절 파견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23일 옛 소련을 해체시키고 민주 러시아를 출범시킨 보리스 엘친 러시아 초대 대통령을 ‘역사적 격변기에 활약한 용기 있는 투사’, ‘냉전의 치유자’ 등으로 추앙하며 그의 타계에 깊은 애도를 표지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러시아 연방의 초대 대통령인 엘친이 “러시아의 정치·경제 개혁을 진전시킨 것 뿐 아니라 동서 화해를 촉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유족, 러시아 국민 및 정부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AP통신이 유엔 대변

인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유족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조문에서 “고인은 세계 평화를 위해 큰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도 기여하였으며 특히 한-러 우호협력 관계의 확고한 틀을 마련한 점을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5일 거행되는 엘친 전 대통령 장례식에 한명숙 전 총리를 정 부 조문사절로 파견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엘친 전 대통령이 러시아에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한 역사

적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 부인 로라 여사와 함께 그의 타계를 깊이 슬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크 시라크 영국 총리는 미망인 나이나 여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조의를 표하고 “고인은, 만나면 기뻐한 따뜻한 친구로 기억에 남을 것”이라며 “러시아인과 전 세계는 자유에 승리할 것이고 러시아를 민주주의의 길로 들어서게 한 사람으로 고인을 기억할 것”이라며 애도했다.

토니 블러어 영국 총리는 “러시아 역사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활약한 탁월한 인물”이라며 슬픔을 나타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엘친

보리스 엘친 연보

- 1930년 2월 11일 스페르도름스크 주 인민마을 부트카서 출생
- 1961년 공산당 입당
- 1976년 스페르도름스크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
- 1981년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
-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에 의해 모스크바당 책임자로 발탁
- 1988년 2월 18일 정치국원서 탈락
- 1989년 소련인민대회 선거운전
- 1990년 5월 러시아의 의장 당선
- 1991년 6월 러시아 직선 초대 대통령 당선
- 1991년 12월 8일 소련붕괴 선언
- 1996년 3월 재선 성공
- 1999년 엘친에 대한 의회 탄핵 결정
- 1999년 12월 31일 건강 문제와 후진 양성 등의 이유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명 후 대통령직 사임
- 2007. 4. 23 타계

연합뉴스그래픽

놀랍도록 성숙한 대응...美 저력 보였다

■버지니아공대 총격 사건이 남긴 것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사건. 32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버지니아공대 총격사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의 반응은 차분하고 현실적이었다. 충격으로 크게 당황했던 교민사회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美 “개인적 사건, 한국 책임 없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고질병인 총기 문제 이외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외톨이를 계속 방치함으로써 발생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따라서 그 배경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제2, 제3의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 사회 성숙한 대응=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에서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조총희를 향한 원망이나 분노를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일부 미국인들과 미국 언론들은 ‘집단지적 죄책감’에 빠져 낙담하고 있는 한국에게 “한국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위로, 격려하며 상처치유를 강조하는 ‘성숙한 모습’이 대세를 이뤘다.

미국 정부는 물론 주요 언론 등 미국내 주류사회는

이번 사건이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건’이라며 한국인 전체의 문제와는 상관없음을 역설했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인 버지니아공대 교수와 학생, 희생자 유가족들도 이 같은 입장이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네티즌 여론조사에선 22일 오후 2시 현재 90%가 조총희 범행에 “한국이 책임이 없다”고 답변한 반면, 한국의 사회적 책임을 지적한 의견은 7.2%였다.

미국 언론들은 조희의 ‘외톨이 이민생활’과 ‘학교 교육 부적응 사례’ 등 이번 사건을 둘러싼 근본적 원인과 총기관리 규제 허술 등 현실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에 골몰했다.

교민사회, 충격 속 한마음 애도 참여

◇안정 되찾는 교민사회=22일 뉴저지주 한인회와 한인교회연합회, 미국교회연합회 등이 합동으로 이번 버지니아공대 희생자들의 추모식을 개최하는 등 주말을 맞아 교포들이 많이 찾은 한인교회 등에서는 희생자들의 추모 의식이 잇따랐다.

교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녀들의 문제에 더욱 신경을 쓰고, 교민사회 자체가 더욱 개방되고 보편을 보여 다인종 미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32번 타중 맞춰 32개 흰 풍선 띄워

■희생자 ‘침묵의 추도식’

미 최악의 총기참사 발생 1주일인 23일 버지니아공대는 따사로운 봄 햇살 속에 평온해보였지만 캄캄한 어둠이 계속됐다.

학교측이 1주일만에 수업을 재개하면서 충격과 악몽에서 벗어나 화합과 치유, 미래를 위해 다시 일어서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이 추

도행사는 이날 9시45분께 교수와 교직원, 학생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추도소에 마련된 희생자 추도석에도 화합을 상징하는 듯 흑인과 백인, 아시아계 학생들이 손에 흰 풍선을 들고 희생자 32명의 마지막 가는 길을 눈물 속에 영접했다.

추도 타종이 시작되자 추도석에 서 한 풍선 1개가 하늘로 향했고, 이후 20초마다 타종과 함께 희생자들의 흰색 풍선이 차례대로 부양됐다.

타종이 끝나자 버스에 올랐던 학생들이 일제히 하늘로 울랐으며, 풍선들은 서로 몸을 비비면서 참사현장인 노리스홀을 지나 하늘 속으로 점점 흩날려갔다.

이날 추도식에서 타종이 32회만 울린 것은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것으로, 참사 장본인인 조총희는 제외됐다. /블랙스버그=연합뉴스

조총희 추모석 사라지고 ‘사랑이 승리할 것’ 편지 놓여

버지니아태 중앙 잔디밭에 등장했던 조총희 추모석이 사라지고 ‘너는 우리를 과소 평가했다. 사랑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가 대신 놓였다. (사진)



버지니아태 중앙 잔디밭에 등장했던 조총희 추모석이 사라지고 ‘너는 우리를 과소 평가했다. 사랑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가 대신 놓여 있었다.

‘호기’라게 더없이 자랑스럽다. 사랑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엔 와 이”라고 적었다. /블랙스버그=연합뉴스

실력있는 국제 영어교사자격 인증과정

ALU- TESOL

학사 석사 박사

‘취업’에 불안을 느끼세요?
‘영어전문가’가 되어 당당한 영어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TESOL 학사/석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십시오.
(총 소요기간 1년)

www.aluniversity.com

입학문의 : 0505-616-1515 president@southbay.ac

American Liberty University 캐나다 자매대학 South Bay 캠퍼스 주관, TESOL(영어교수법)의 학위과정을 진가를 느끼세요.

〈주의 요망!〉 흔히 시중에서 TESOL Certificate 과정, 수료증 과정이라는 것은 석사학위과정도 아닙니다. 국내에서 공부하고 ALU- TESOL 학위를 취득하십시오. American Liberty 대학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박사학위 등 록이 되는 정규대학입니다.

경찰시험 합격비법 공개!

경찰시험에 합격을 좌우하는 열쇠는 ‘경찰영어’ 점수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영어! 2개월이면 말끔하게 마무리 됩니다.

동아경찰영어

필승 합격반 모집 중!

각 분야 막강 강사진! 경찰영어 강의만큼은 자신만만!
먼저 입주일 들어보고 수강등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료강의는 아닙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경찰영어 강의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 오전 7:20~8:40 • 오후 4:40~6:10 • 오후 7:20~8:50

새로운 건물로 완전 이전 확정 - 예술의 거리 한평만 사거리 T. 222-6253 www.donga.tv

동아외국어학원

당신도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우스베이 한의대

www.southbay.co.kr
☎ 0505-313-1515

토익990점 만점 대특강

토마토 해커스 실전990

TOEIC강좌 퍼레이드!

동아외국어학원은 오로지 토익 만점(990점)만을 위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탄탄한 TOEIC강좌로 소문난 동아외국어에서 만점 합격의 기쁨을 누리세요

호화막강 강사진! 열강! 역강!

TESOL 박사 최갑원장

토익만점 11회 조성훈 교수

토익 분석 전문가 차준오 교수

새로운 건물로 완전 이전 확정 - 예술의 거리 한평만 사거리 T. 222-6253 www.donga.tv

동아외국어학원

Cell Banking

셀뱅킹은, 건강할때 자신의 세포를 보관하였다가 암(癌)등 주요 질병 발생시 치료에 사용하는 1:1 맞춤치료의 시작입니다.

각 지역별 지점모집 KSCB 한국줄기세포은행 광주지사 (062)373-3475 (세포치료) www.koreacellbank.com

아래 지정 병원과 상담하세요

전남동부지점(순천, 여수, 광양) 061-743-3475 • 광주 광진 참판하나산부인과 973-0910 이창의의원 953-7582 고은의원 951-9011 다나가정의학과의원 955-1888 소촌연합의원 943-5875 박가정의학과의원 941-0531 남구 한중가정의원 675-8075 장내과의원 225-1616 이상재이비인후과 366-2538 동구 본정형외과의원 236-3501 은누리가정의원 234-7571 북구 한술내과의원 575-0075 성보의원 526-7772 양정정형외과의원 571-2277 삼각연합의원 251-0042 장수연합의원 062-266-7598 희망의원 573-5451 현대정형외과 529-1101 국민근피부과의원 573-9975 한빛신경외과의원 574-7582 우병진내과의원 269-3300 서구 퍼스트의원 384-0044 다나중증의학과의원 651-7578 한사랑중증의학과의원 365-7582 홍암산부인과의원 681-0800 • 전남 광양 정외과의원 792-8561 나주 이필수의과의원 332-9800 목포 성모의원 242-5554 청송의원 274-7077 아름다운의원 274-8275 순천 금방병원 720-3500 모두편한내과 725-7568 영광 김기영내과 353-7521 장성 삼성의원 395-3800 김내과의원 393-7533